

전기요금 유가따라 달라진다...연료비 연동제 도입

한전, 요금 체계 개편...350kWh 기준 4인가구 전기요금 1080원 ↓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 할인액 점진적 축소 내년 7월 폐지
산업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주택용도 도입

바뀐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라 4인 가구 월 전기요금(월 평균 350kWh 사용)은 1050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에는 전기료가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전이 주택용 월 사용량으로 제시한 350kWh으로 계산된 전체 요금 인하분은 1050원이 된다. 여름철 누진제 완화나 추가 공제 등 기타 요인은 배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요금 1600원과 전력량 요금 4만6845원을 더해 전기요금 4만8445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4845원, 전력기금 1790원(전기요금의 3.7%)이 더해져 총 납부해야 하는 청구금액은 5만5080원이 된다.

내년 1월에는 기본요금이 1600원으로 동일하지만, 전력량 요금에 변동이 생긴다.

먼저 기후·환경 비용이 분리되면서 전력량 요금이 4만6845원에서 1750원의 기후·환경 비용을 뺀 4만5095원이 된다.

분리한 기후·환경 비용 1750원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4.5원/kWh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0.5원/kWh 등 총 5.0원/kWh에 사용한 전력량 350kWh를 곱한 값이다.

고지서에는 '기후·환경 요금'이란 항목이 새로 생긴다.

기후·환경 비용이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시 청구서 예시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를 기준 작성 예시

개편 전		개편 후	
기본요금	1,600원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46,845원	전력량요금(①+②)	45,095원
		①개편전요금	46,845원
		②환경비용차감	-1,750원
		기후환경요금	1,855원
전기요금계	48,445원	연료비 조정액	-1,050원
부가가치세	4,845원	전기요금계	47,500원
전력기금	1,790원	부가가치세	4,750원
원단위절사	0원	전력기금	1,750원
당월요금계	55,080원	원단위절사	0원
청구금액합계	55,080원	당월요금계	54,000원
		청구금액합계	54,000원

전력량 요금에서 기후·환경 비용 일부를 분리해 20년보다 5.0원/kWh씩 인하
신재생에너지 비용(4.5원/kWh), 온실가스 감축비용(0.5원/kWh),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kWh) 의미
관세청 고시 무역통계에 따른 연료비(LNG, 석탄, 유류) 변동 반영 요금
20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 전망
1~3월 -3, 4~6월 -5
단위: 원/kWh

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 요금은 기존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한 RPS 및 ETS 비용 1750원과 내년부터 추가되는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감축 비용(0.3원/kWh×350kWh)

1050원을 더한 총 1855원이 된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른 '연료비 조정액' 항목 고지서에 신설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매 분기 바뀌며, 그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단 내년 1월에는 kW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이 이뤄지므로 전력사용량 350kWh에 대한 전체 요금 인하분은 1050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 요금 4만 5095원, 기후·환경 요금 1855원, 연료비 조정액 -1050원을 합한 전기요금 4만7500원에 부가가치세 4750원, 전력기금 1750원을 더하면 총 청구금액은 5만4000원이 된다.

전기요금 개편 전과 비교하면 최종 청구액이 1080원 내려간 것이다.

개편안에서는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을 고려해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집에 맞게 식탁도 주문 17일 ㈜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이 이달 31일까지 분관 8층에서 운영하는 '블랑드누아' 임시매장(팝업스토어)에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판매되는 식탁은 친환경 세라믹 소재로, 고객 주문에 따라 맞춤형으로 상판이 제작된다. <광주신세계 제공>

육아·공부할 때 쓰세요...중기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가능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30~299인 사업장 확대...주당 15~30시간 가능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임신,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줄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해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내년 1월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2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장 1년이 고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연장 기간을 포함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 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호남 첫 '이스포츠경기장' 조선행 해오름관에 20일 개관

온라인 게임대전 등 비대면 개최

호남권 첫 '이스포츠' 경기장이 오는 20일 문을 연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날 오후 3시 동구 서석동 조선행대학교 해오름관 주경기장에서 '광주 이스포츠경기장' 개관식을 비대면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온라인(LG헬로비전 유튜브)과 케이블 방송(LG헬로비전, OGN)을 통해 생중계한다.

'광주 이스포츠경기장'은 주경기장 100석, 보조 경기장 160석 규모로 국내 상설 이스포츠경기장

중 최대의 크기를 자랑한다. 주경기장에는 가로 15.5m 세로 4m 규모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 경기장 외에도 이스포츠 중계를 위한 방송용 카메라와 보조정실 등 방송시설과 이스포츠 관련 교육 및 1인 크리에이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갖는다.

이날 개관식 이후에는 오는 20일까지 게임 관련 크리에이터 초청 토크콘서트, 온라인 게임대전, 광주 오픈 이스포츠대회 결승과 '카트라이더' 프로그래밍 특강 등이 온라인 상으로 열린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gitct.or.kr)를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수자원공사·광주과학기술원 물관리 기술 공동개발 협약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이 물관리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17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질 분야 정보공유 및 빅데이터 구축 ▲첨단 측정분석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 및 산업계 물 현안 해결 ▲물환경 관리 고도화를 위한 신중 미량오염물질·이물질 등 탐색 기술개발 협력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